나라사랑

든든한 보훈 | 국가보훈처

narasarang.kr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월간) 국가보훈처 ☎ 1577-0606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보훈안전망 강화

새해 보훈예산·사업 확정 예산 5조8,752억원 편성…보상금 5% 인상

2022년 보훈예산은 지난해 5조8,350억원에서 402억원이 늘어난 5조8,752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9% 늘어난 5조6,544억원이며, 보훈기금은 1,254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경우 867억원에서 10% 늘어난 953억원이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예산편성과 관련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훈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했으며,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도 5% 인상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1만원씩 인상했다. 〈2면 상세 보상금·수당 내역〉

특히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소득 산정 시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 최고액 수준(올해 기준 43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1만3,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고령 국가유공자가 원거리의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위탁병원을 640개소로 확대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 신설되는 약제비 지원은 상반기에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한 후 4분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8·9면 보훈처 상세 업무계획〉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서욱 국방부장관(오른쪽부터)과 함께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보훈처·국방부·권익위,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는다

정부는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합동 특별조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서욱 국방부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전사·순직한 전우들을 대신해 6·25참전유공자회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문의, 육군본부 보훈지원과 042-550-7387.

